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2년 11월 24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박영환, 차장 이화연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상폭은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세계경제지표

		21.4/4	22.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미국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7.0	-1.6	-0.6	2.6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2.4	3.3	2.6	0.8	-0.4	0.7	0.0	1.3
	산업생산 ¹⁾ (전기비, %)	1.2	1.2	1.3	0.5	0.7	-0.1	0.1	-0.1
	ISM제조업 ²⁾ (기준=50)	60.1	57.8	54.8	52.2	52.8	52.8	50.9	50.2
	실업률 ¹⁾ (%)	4.2	3.8	3.6	3.5	3.5	3.7	3.5	3.7
	비농기취업자수증감 ¹⁾ (전기비, 만명)	175.9	172.0	122.6	116.1	53.7	29.2	31.5	26.1
유로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2.1	2.4	3.3	0.8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0.5	-0.2	-0.4	-0.7	-0.2	0.0	0.4	..
	산업생산 ¹⁾ (전기비, %)	0.1	0.9	0.2	0.5	-2.3	2.0	0.9	..
	제조업PMI ²⁾ (기준=50)	58.2	57.8	54.1	49.3	49.8	49.6	48.4	46.4
	실업률 ¹⁾ (%)	7.1	6.8	6.6	6.7	6.7	6.7	6.6	..
	수출 ¹⁾³⁾ (전기비, %)	4.7	6.2	5.7	2.6	-1.7	3.5	1.6	..
일본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4.1	0.2	4.6	-1.2	-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1.5	-0.9	1.8	1.4	0.7	1.3	1.5	..
	산업생산 ¹⁾ (전기비, %)	0.2	0.8	-2.7	5.8	0.8	3.4	-1.7	..
	제조업PMI ²⁾ (기준=50)	54.0	54.1	53.2	51.5	52.1	51.5	50.8	50.7
	수출 ¹⁾ (전기비, %)	4.2	3.7	6.6	6.7	2.3	-0.6	3.4	2.2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4.0	4.8	0.4	3.9	-	-	-	-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	3.5	3.3	-4.6	3.5	2.7	5.4	2.5	-0.5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3.9	6.5	0.7	4.8	3.8	4.2	6.3	5.0
	제조업PMI ²⁾ (기준=50)	49.9	49.9	49.1	49.5	49.0	49.4	50.1	49.2
	수출(전년동기비, %)	22.7	15.6	12.4	10.2	18.0	7.2	5.9	-0.3
글로벌	교역량증가율 ⁴⁾ (전년동기비, %)	6.8	5.7	4.7	..	5.6	6.3

주: 1) 계절조정 기준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역내거래 제외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로 위험 회피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였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표

		7월	8월	9월	10.11일	10월	11.23일
전세계 MSCI ¹⁾		637.7	613.1	553.4	552.1	586.4	623.2
- 선진국		2,746.4	2,627.3	2,378.7	2,376.3	2,547.7	2,697.4
- 신흥시장국		993.8	994.1	875.8	864.7	848.2	932.3
VIX ¹⁾		21.3	25.9	31.6	33.6	25.9	20.4
환율 ¹⁾	달러인덱스	105.9	108.7	112.1	113.2	111.5	106.1
	신흥시장국 ²⁾	50.4	50.1	48.4	48.3	48.8	49.8
	중국 ³⁾	6.74	6.90	7.12	7.17	7.30	7.16
국채금리 ¹⁾⁴⁾ (%)	미국	2.65	3.19	3.83	3.95	4.05	3.69
	독일	0.82	1.54	2.11	2.30	2.14	1.93
CDS프리미엄 ¹⁾ (bp)	브라질	273.2	263.9	312.3	299.7	277.0	262.3
	인도네시아	115.0	119.4	159.5	167.2	140.9	104.3
	한국	40.1	32.3	57.5	61.6	70.4	51.5
유가 ¹⁾⁵⁾ (달러/배럴)	WTI	98.6	89.6	79.5	89.4	86.5	77.8
	Brent	108.0	95.7	86.2	93.8	93.3	83.6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월중, 억달러)		-96.9	-2.3	-89.2	-30.5 ⁶⁾	-60.6	4.7 ⁷⁾

주: 1) 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3) 미 달러화 대비
 4) 10년물 기준 5) 현물 기준 6) 9.29~10.5일 기준
 7) 11.3~11.16일 기준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었지만 낮은 실업률 수준이 이어지는 등 양호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로 전망된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0	2021	21.4/4	22.1/4	2/4	3/4	8월	9월	10월
GDP 성장률 ¹⁾	-0.7	4.1	1.3	0.6	0.7	0.3	-	-	-
(민간소비)	-4.8	3.7	1.5	-0.5	2.9	1.9	-	-	-
(설비투자)	7.2	9.0	-0.2	-3.9	0.5	5.0	-	-	-
(건설투자)	1.5	-1.6	2.0	-3.9	0.2	0.4	-	-	-
소매판매액지수 ²⁾	-0.2	5.9	1.1	-1.1	-1.1	1.2	4.4	-1.8	..
설비투자지수 ²⁾	5.9	9.6	-0.2	0.2	-1.2	10.0	10.7	-2.4	..
건설기성액 ²⁾	-2.1	-6.7	4.1	-1.9	1.4	0.3	3.8	0.0	..
수출(통관) ³⁾	-5.5	25.7	24.5	18.4	13.0	5.8	6.6	2.3	-5.7
- 일평균 ³⁾	(-5.7)	(25.7)	(21.9)	(20.3)	(13.8)	(5.1)	(2.1)	(-0.1)	(-7.9)
제조업생산지수 ²⁾	-0.2	7.6	1.3	3.9	-1.7	-1.6	-1.2	-1.8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2.0	4.4	1.5	0.0	2.8	1.5	1.8	-0.3	..
소비자심리지수 ⁴⁾	87.9	103.1	106.0	103.6	100.9	88.7	88.8	91.4	88.8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66	92	92	88	85	78	80	74	72
취업자수 증감 ³⁾⁴⁾	-21.8	36.9	66.0	100.1	88.0	78.0	80.7	70.7	67.7
고용률(원계열)	60.1	60.5	61.1	60.5	62.7	62.8	62.8	62.7	62.7
실업률(원계열)	4.0	3.7	2.9	3.5	3.0	2.5	2.1	2.4	2.4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

[물 가]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10월에도 5.7%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를 소폭 하회하는 5.1% 및 3.6%로 전망되지만,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21.4/4	22.1/4	2/4	3/4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¹⁾	3.5 (1.0)	3.8 (1.5)	5.4 (2.1)	5.9 (1.1)	5.7 (-0.1)	5.6 (0.3)	5.7 (0.3)
▪ 농축수산물	5.2	2.7	3.6	6.8	7.0	6.2	5.2
▪ 공업제품	4.6	5.4	8.5	7.5	7.0	6.7	6.3
(석유류)	29.1	22.5	36.3	23.7	19.7	16.6	10.7
(석유류 제외)	1.5	3.1	4.5	5.1	5.1	5.2	5.6
▪ 전기·수도·가스	1.4	2.9	8.7	15.3	15.7	14.6	23.1
▪ 서비스	2.8	3.0	3.5	4.1	4.1	4.2	4.2
(공공서비스)	2.7	0.8	0.7	0.7	0.8	0.7	0.8
(개인서비스)	3.1	4.2	5.1	6.1	6.1	6.4	6.4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2.2	2.8	3.5	4.0	4.0	4.1	4.2
(관리물가 ²⁾ 제외)	2.1	3.3	4.1	4.8	4.8	4.8	5.0
▪ 농산물·석유류 제외	2.6	3.2	4.0	4.5	4.4	4.5	4.8
기대인플레이션율 ³⁾	2.6	2.7	3.4	4.4	4.3	4.2	4.3

주: 1)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단기금융시장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의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거래도 위축되었다.

국내금융지표

	7월	8월	9월	10.11일	10월	11.23일
국고채금리 ¹⁾²⁾ (3년물, %)	3.01	3.69	4.19	4.34	4.19	3.85
국고채금리 ¹⁾²⁾ (10년물, %)	3.13	3.72	4.10	4.31	4.24	3.77
통안증권금리 ¹⁾²⁾ (91일물, %)	2.30	2.65	2.81	2.81	3.26	3.37
CP금리 ¹⁾²⁾ (91일물, %)	2.86	3.09	3.30	3.51	4.68	5.47
회사채금리 ¹⁾³⁾ (3년, AA-, %)	3.97	4.66	5.28	5.44	5.58	5.54
(3년, BBB-, %)	9.82	10.52	11.13	11.28	11.42	11.38
KOSPI ¹⁾	2,452	2,472	2,155	2,192	2,294	2,418
원/달러 환율 ¹⁾	1,299	1,338	1,430	1,435	1,424	1,352
원/100엔 환율 ¹⁾	980	966	990	985	964	956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1.8	4.0	-2.5	0.6 ⁴⁾	3.1	2.5 ⁵⁾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10.1~11일중 5) 11.1~23일중

-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21.4/4	22.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16.7	28.2	31.3	30.3	12.2	8.7	9.4	13.7
▪ 대기업	3.3	5.7	9.3	12.9	5.4	2.9	4.7	9.3
▪ 중소기업	13.4	22.5	22.0	17.3	6.8	5.8	4.7	4.4
은행 가계대출 증감 ¹⁾ (조원)	7.9	-1.7	1.8	-1.3	-0.3	0.3	-1.3	-0.6
▪ 주택담보대출 ¹⁾	9.0	6.0	4.3	4.5	2.0	1.6	0.9	1.3
▪ 기타대출 ²⁾	-1.2	-7.7	-2.6	-5.7	-2.3	-1.3	-2.1	-1.9
주택 매매가격 ³⁾ (%)	1.8	0.1	0.1	-0.8	-0.1	-0.3	-0.5	-0.8
▪ 수도권 ³⁾⁴⁾	2.2	-0.0	-0.1	-1.2	-0.1	-0.4	-0.6	-1.0
(서울) ³⁾	1.5	-0.0	0.1	-0.8	-0.1	-0.2	-0.5	-0.8
▪ 지방 ³⁾⁵⁾	1.4	0.3	0.2	-0.5	-0.0	-0.2	-0.3	-0.5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